

아케엠주보

주님 부활 대축일

Association of Korean Catholic Communities of the Middle East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연합회



HAPPY
EASTER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요한 1,14)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AKCCME) 한국어 미사 시간]

수호성인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St. Francis of Assisi)

카 페 <https://cafe.daum.net/akccme>

회 장 우종관 대건 안드레아 (+971 50 940 7275)

편집/사무국장 박정인 미카엘라 (+971 56 701 7702)

발행인/전담사제 김성인 미카엘, OFM (+971 58 568 7985)

사무실 +971 2 446 1929

주 소 St. Joseph's Cathedral, Al Mushrif W24-02

P.O. Box 54, Abu Dhabi, UAE

관할지역 리비아, 모로코, 사우디 아라비아, UAE, 이란,

이집트, 카타르, 쿠웨이트, 튀르키예 등

중동 및 북아프리카

- UAE 아부다비 성 요셉 성당:
첫째/셋째 토요일 12:00 *
 - UAE 두바이 성 프란치스코 성당:
둘째/넷째 주일 14:00 *
 - UAE 르와이스/바라카 성 요한세례자 성당:
둘째/다섯째 토요일 17:30
 - 쿠웨이트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5:00
 - 카타르 목주의 성모 성당: 둘째 금요일 15:00
 - 이집트 카이로 성가정 성당: 매주 금요일 11:00
 - 튀르키예 이스탄불 성 마리아 드라페리스 성당: 매주 주일 10:00
- * 미사가 없는 주에는 '공소 예절' 이 진행됩니다.

오늘의 전례: **주님 부활 대축일**

오늘은 주님 부활 대축일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맙시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 막달레나와 함께 벅찬 기쁨을 노래합시다. “그리스도 나의 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알렐루야, 알렐루야.”

• 제1독서

사도 10,34ㄱ.37ㄴ-43

• **입당송** 시편 139(138), 18.5-6 참조

• **화답송** 시편 118(117),1-2.16-17.22-23(㉔4)

◎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 제2독서

콜로 3,1-4

•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스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군게	민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복음환호송** 1코린 5,7.8 참조

◎ **알렐루야.**

○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 **알렐루야.**

• 보편 지향기도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는 교회에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넘치는 생명력과 열정으로 온세상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2.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의 주님, 공직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심어 주시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권을 남용하지 않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3. 아캠 전담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원한 사제이신 주님, 주님을 따르며 사랑을 실천하고자 맡겨진 사명을 다하는 아캠의 목자 김성인 미카엘 사제를 인자로이 굽어보시어, 십자가 너머 부활의 생명으로 오신 주님께서 사제의 희망이 되어 주시고, 이를 통해 돌보는 양 떼에도 희망을 전하게 하소서.

4. 중동 한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중동 한인 공동체에 믿음과 열성의 은총을 주시어, 지상 생활의 순례자로서 천상 것을 바라며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 영성체송

바룩1코린 5,7-8 참조

Christ is Risen!



happy
easter



2025 부활 메시지

T.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요한 20, 1-9)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긴 사순 시기를 지나, 드디어 고대하던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은, 사순 시기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기다려 오셨습니까? 얼마만큼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얼마만큼 간절히 기다리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에는 언제나 수난과 죽음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난과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는 표현에는, 온 인류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그 나름의 삶의 무게를 언제나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고,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마태 11, 28) 우리 모두의 축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기쁨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 삶이 예수님의 부활에 녹아 있고, 또 예수님의 온 삶과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나 우리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자신을 향했던 미움, 우리가 스스로를 탓했던 상처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듯이, 우리는 늘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들에 실망하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활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지금은 내가 처한 상황이 너무나도 못마땅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하느님께서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뒤집어 놓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결국 우리를 못 견디게 기뻐하게(성무일도 시편 125)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미웠던 나 자신과 나 자신이 만들어낸 힘겨웠던 지난 시간들과 화해하게 될 것이고, 또 나 자신과 지난 시간들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리게 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느님께서 내가 피하려 했고 거부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참된 행복을 향한 복된 여정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느님께서 좋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온 마음으로 감사드리도록 합시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부를 노래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시온의 귀양을 풀어 주께서 돌려보내실 제,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그때에 우리 입은 웃음이 가득하고, 흥겨운 노래 가락 혀에 넘쳤나이다. 그때에 이방인이 이르기를 “하느님이 저들에게 큰일을 해 주셨다.” 주께서 과연 우리에게 큰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못 견디게 기뻐했나이다.

(성무일도 시편 125)



2025년 4월 20일, 주님 부활 대축일에

김성민 미카엘, OFM

[UAE] 주님 부활 대축일 합동 미사



- ▶ 일 시 : 4 월 20 일 (주님 부활 대축일) 12시
- ▶ 장 소 : 아부다비 주교좌 성당 내 페리시홀
- ▶ 미사 후 친교: 아부다비 'Casavill Korean restaurant'에서 식사 및 친교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프란치스코 센터] 2025년 2학기 온라인 신학원 수업 안내

온라인 신학원 프란치스코센터 2학기 수업(4/29~6/26)이 곧 시작합니다. 대면 수업과 녹화 영상 온라인 강좌가 모두 진행됩니다. 기존 과목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센터.my.canva.site/franrfi)

- ▶ 신청 및 수강 기간: 수시로 / 무제한
- ▶ 수강 신청: 문자 혹은 이메일 (+82-10-5162-6295 / franrfi@daum.net)
- ▶ 상담 및 문의: 프란치스코 센터 네이버 톡톡 (<https://naver.me/FY3UNsck>)
- ▶ 과목 당 수강료: 10 만원 (6만원: 특별 할인 대상자)



[아캠] 온라인 한국어 첫영성체 부모 교리 / 세례 예비자 대부모 교리



아부다비 첫영성체 대상자 부모 및 쿠웨이트 세례 예비자 대부모를 위한 온라인 교육이 아래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일정을 확인하시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일 시 : 4 월 21 일 (월) ~ 24 일 (목) 20시
- ▶ 방 법 : 아캠 공용 줌

[교종 프란치스코] 4월 기도 지향

4월: 신기술의 사용

신기술의 사용이 인간관계를 대체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우리 시대의 위기에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부활을 기다리며...’



함께하며, 하나되며
중동한인
AKCCME가
통리
공동체
모습들

<아부다비 공동체> 주일학교 부활 달걀 및 쿠키 만들기



4 월 13 일 2:00 pm



2025년 '희망' 기도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형제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과
성령을 통하여 저희 마음에 부어 주신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리라는 복된 **희망**을
저희에게 다시 일깨워 주소서.

악의 세력이 패배하고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히 드러나는
새 하늘 새 땅을
확신에 차 기다리며
온 인류와 우주가 떨쳐 일어나도록
아버지의 은총으로
저희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희년의 은총이
희망의 순례자인 우리 안에서
천상 보화를 향한 갈망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의 기쁨과 평화가
온 세상에 흘러넘치게 하소서.

영원히 복되신 하느님께서
세세 대대로 찬미와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Franciscus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번역)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 현존 50주년 준비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주님께서서는 이집트 종살이하던 당신 백성을 부르시어,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을 비추어 주셨나이다.(탈출 13,21)

참된 자유를 찾아 광야를 걸었던 2000년 전 당신 백성처럼
이곳 광야에서 평화의 사도인 성 프란치스코와 함께
현존 50주년을 향해 순례하는
중동 한인 가톨릭 공동체를 굽어살피시어,

말씀과 성체 안에서 당신을 만나고,
이웃 안에서 당신을 알아볼 수 있게 하시며,
모든 어려움 중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의 보호를 찾게 하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서른 배, 예순 배, 백 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마침내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 뵈옵는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아라비아의 성모 마리아여,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아씨시의 성 프란치스코,
◎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부활 삼종 기도

(주님 부활 대축일 ~ 성령 강림 대축일)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 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교황 프란치스코를 위한 기도



자애로우신 하느님,
저희는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를
자애로이 돌보아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예수회원으로, 사제로, 대주교로, 추기경으로,
그리고 교황으로서 당신을 섬겨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의 아드님께서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포함하여
만나는 모든 이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 연민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로운 병마와 맞서 싸우는 이때,
그를 돌보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고통을 은총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바칩니다.

아멘.

- 제임스 마틴 SJ 신부 -

선 . 생 . 님 . 궁 . 금 . 해 . 요 .



<13>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부활

부활 시기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에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죽음에 대한 극복 -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안을 느끼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로운 삶의 길이란 초자연적인 사건을 제시합니다. 생명을 창조한 생명의 주인공이 부활함으로써 새 삶의 희망을 줍니다.

둘째: 죄와 악마에 대한 승리 -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은 죄에서 비롯됐는데, 주님 부활로 모든 죄와 악마의 세력이 꺾였습니다. 부활은 세속에 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셋째: 우리 부활을 보증 - 우리 인간이 죽은 다음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할 수 있다는 새로운 믿음과 새 삶의 희망을 줍니다.

예수 부활은 하느님의 아들이요 절대자임을 일깨워주는 당신 절대성에 대한 증명입니다.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근거요 부활 사건입니다.

① **부활 주일 날짜:** 주님 부활 대축일은 언제나 주일이지만 그 날짜는 매년 다릅니다. 부활 주일은 구약의 파스카 축제와 연결됩니다. 유대인들은 초봄의 만월(滿月, 보름)을 ‘니산(Nisan)’이라 하는데, 이달 14일을 파스카 축제일로 정했습니다. 일찍이 동방 교회는 유대인들의 파스카 축제일을 부활 주일로, 서방 교회는 그 다음 주일로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325년 니케아 공의회는 춘분(3월 21일)이 지난 만월 다음 오는 주일을 부활 주일로 정했습니다.

사순 시기도, 성령 강림 대축일도 예수 승천 축일도 모두 부활 주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② **부활의 상징:** 달걀은 겉보기에 죽은 것 같으나 그 안에는 언제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곧 달걀은 부활의 새 생명을 뜻합니다. 또 다산(多産)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토끼 역시 초대 교회 신자들에게 다산의 상징이었습니다. 토끼의 깨끗한 털이 우리 영혼의 깨끗한 모습을 뜻한다는 의미에서 부활 토끼를 만드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부활을 상징하는 빛나는 흰색의 백합은 완전성과 선의를 뜻합니다.

③ 부활 전례

부활 성야

빛의 예식과 부활 초: 빛과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랑을 드러냅니다. 축성 시 활활 타오르는 불은 하느님의 출현을 뜻하며, 영원하신 성삼위의 지극히 거룩함을 묘사합니다.

말씀 전례: 천지 창조부터 부활 승리에 이르기까지 하느님과 인간의 구원 역사를 되새기며 빛의 백성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구약 7개 독서를 3개로 줄일 수 있지만, 탈출기 14장은 절대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전례: 세례 관습은 2세기 말 ~ 3세기 초 시작됐지만, 성야 예식에 들어온 것은 4세기 초입니다. 세례의 바탕이 부활이며, 세례가 부활의 의미를 성사적으로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의 전례: 죄와 죽음이 물러가고 펼쳐지는 새 세상은 그리스도와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련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성야 전례의 절정을 이룹니다.

④ **부활 8일 축제:** 교회는 전통적으로 큰 축제일 경우 8일간 계속했습니다. 부활 8부는 부활 축일부터 그 다음 주일(부활 제2주일)까지 8일인데, 모두 대축일 등급입니다.

⑤ **예수 승천 대축일:** 4세기경 사도행전 1장 3절 영향을 받아 예수 승천 대축일이 생겼습니다. 5세기 동·서방 교회는 부활 후 40일을 승천 축일로 지냈습니다. 이는 구원의 신비를 새로운 각도, ‘구원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밝혀줍니다.

⑥ **성령 강림 대축일:** 부활 시기의 마지막 날인 오순절에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냅니다.

부활 시기는 ‘결백과 기쁨·환희’를 상징하는 흰색 제의를 입습니다.

Alleluia !!



가톨릭 평화 신문, <박모란 교리 교사의 교리, 궁금한 건 못 참지> 편집



가로로 자를지 세로로 자를지

글: 공지영 마리아(작가)

예루살렘 양 문 근처에 벳자타라는 연못이 있었다. 그곳에는 천사가 물을 출렁거릴 때 제일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나으리라는 전설이 있었다. 가짜뉴스였다. 그걸 믿고 거기에서 38년을 누운 채로 기다리는 병자가 있다. 어느 날 예수가 그에게 다가가 묻는다. “건강해지고 싶으냐?” 하신 거다.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뻔히 보면서 누굴 놀리느냐고 뺨을 맞으신데도 편들어 드리진 못할 것만 같은데 병자의 대답은 한술 더 엉뚱하다. “저를 못 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러자 예수는 말한다.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는 그 자리에서 나아 버렸다. 병이 나았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신문답처럼 기이했을지도 모른다.

이 장면이 내게 준 충격은 어마어마했다. 뻔히 아픈 걸 보시면서 “낫고 싶으냐”고 묻는 예수님도, 그런 질문에 ‘제가 처방을 안다’는 듯 대답하는 병자도 그랬고 더더욱. 그런데도 병이 나아 버리는 것도 그랬다. 돌아보면 여러 번 예수께서 내게 물으셨다. “구원받고 싶으냐? 평화로워지고 싶으냐? 혹은 진리를 알아 자유로워지고 싶으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다. 그때마다 나는 대답했었다. “우리 남편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어야 할 것 같아요. 돈이 조금만 더 있어야 해요. 저 정치인은 없어져야 할 것 같아요.” “건강해지고 싶으냐” 물었을 때, 그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대답은 내게도 38년이 지나서 60년이 되도록 그렇게나 어렵다.

내 인생을 돌아보면 20대에 세상의 이치를 다 안다고 생각했었고, 30대에 세상은 알겠으나 사람은 모르겠다고 문득 깨달았다. 40대가 되자 내가 모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며, 50대가 다 지나가자 내가 그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로 떠돌았던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한가지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 ‘내가 다는 모른다’는 것이다. 다만 나는 내가 평화롭고 우리 인류가 평화롭고 우리 민족이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는 것을 알 뿐이다. 왜 정치적 발언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마도 이것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마도 예수께서 “이 나라의 평화가 오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저기요 저 정당은 좀 정신을 차려야 할 것 같고, 저 정당은 곧 독재할 것 같고, 미국은 좀 자제를 해야 할 것 같고”하는 말을 꼭 참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할 수는 있게 된 것 같다.

다만 작금의 현실을 돌아보며, 법정에서 한 아기를 놓고 ‘반 갈라 가지라’고 한 솔로몬의 판결을 듣고, 한 엄마는 ‘칼로 세로로 깨끗하게 자르자’고 하고, 한 엄마는 ‘가로로 잘라 나누자’고 하며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어떻게 아기의 몸을 세로로 반을 자르자고 할 수 있느냐? 저는 반대입니다”라고 말하니, “그럼 너 가로로 자르는 편이구나?” 하고 몰아세우고, “어떻게 아이를 가로로 잘라요?” 하고 물으니 “그런 너는 세로로 자르자는 편이구나” 하며 물이들을 해댄다. 사제들까지도 거기에 합세하고 있다.

좀 쉬러 성당에 가도 “너 세로 파야 가로 파야?” 이러는 강요를 듣는 것만 같아 정말 힘이 든다. 진짜 엄마는 법정에 들어오지도 못한 채 문밖에서 울고 있는데, 이 나라는 어디로 갈까. 주님 제게 물어주십시오. 꼭 참고 대답할게요. “예, 이 나라의 평화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부활을 축하합니다!

아캠 기금 납부 및 후원 안내

아캠 기금은 아캠 규정 '제15조 거룩한 직무를 위한 비용'에 따라 전담 사제의 성무활동비, 사무국 운영 및 한인 공동체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되며, 중동지역 내 한인 공동체들의 '자발적 납부와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 인터넷 बैं킹 접수

Account Holder Name: JEONGIN PARK
Bank : Emirates NBD / Account Number: 0999501772101
IBAN: AE52 0260 0009 9950 1772 101
(송금시 reference에 이름 기재 부탁드립니다.)



 ARAKO 두바이 한인 부동산 Sale / Rent/ Off Plan 상담  오픈챗  최은정 셀레나 (055. 360. 0733)	SUZE 수제과일청 각종소스류 • 100% Handmade • 100% Fresh Fruits • 100% Organic Sugar 홈카페 / 내,외국인 선물 / 단체주문 박혜정 안젤라 (058. 580. 2814) /  : angela7204	SGE 두바이삼성학원 강남 삼성학원 두바이 분원 1. 아부다비/두바이 국제학교 2. 현지 대학 입학 대행 서비스 3. 특례 입시 전문 4. 성인반 영어 프로그램 정미숙 라파엘라 (+971) 50 461 3991 /  : 두바이삼성학원
---	--	--